

The Aesthetics Study on the Breast Design in Fashion

Hoo-Nam Nam* · Key-Sook Geum

Keukdong College* · Hongik University

The breast among women's body parts may be comparable to men's penis, because it is protruded. One of the curiosities harbored most by anthropologists may be why women are so different from men physically. One of such differences must be the breast. Female animals do not have such a swollen breast even when they nurse their young.

We can find many Western garments highlighting the breast, but in Korea the tradition has been that the breast should not be highlighted. It was because the large breast was deemed useful that Western people appreciated it highly. In general, it is conceived that to ancient Westerners' eyes, the nursing function of the breast was very mysterious, because the food supplies were insufficient. To the contrary, in the societies with rich agricultural products, the breast was not much emphasized as the reproductive organs.

Although the breast has been expressed differently by painters depending on the social conditions, such expressions reflected the atmosphere of the time commonly. If we review the breasts expressed in artworks by nation and time, we can know that when a society was affluent and its culture developed much but a little decadent shadow was cast on the society, such cone-like breasts were more expressed.

In contrast, cone-like breasts are found much in the sensual artworks which reflect the perception that the breast is one of the female sexual organs; women may have been viewed as sexual objects.

Analyzing the aesthetic values of the breast-

featuring designs by dividing them into four categories in large.

First, the concealing type consists of compressing garments, those garments emphasizing the nipples. The garments belonging to this type are designed to stimulate an imagination for the breast hidden rather than exposing the breast directly and thereby, create a sense of privacy and a sense of beautiful chastity.

Second, the underwears used as braziers or corsets or other compensations have turned into the outer garments emphasizing the breast curve. Such garments may be categorized into compressing designs. Since such designs press the breast to the extent of making the wearers feel inconvenient and thereby, emphasize the breast curve, they even invoke an aesthetics of sadism.

Third, the exposing type consists of the designs revealing the breast completely. This type of garments is intended to reveal women's beautiful body intact. Such an exposure of the breast may be attributable to the perception that the breast not as a sexual organ distinguishes women from men, and thus, exposure of the breast has been sublimed into a romanticism only to invoke a sense of eroticism.

Fourth, the exaggerating type consists of the designs which create a second body ideal or a little exaggerated to camouflage the real body. Such designs using the bodies primarily create a visual effect of combining garment and body. All in all, it invokes a sense of formative aesthetics for the breast.

패션에 표현된 Breast 디자인의 미적 연구

남후남* · 금기숙

극동정보대학* · 홍익대학교

여성의 몸 가운데서도 가슴은 돌출된 특성 때문에 남성의 남근에 비유된다. 남녀 성적 차이를 뚜렷이 구분해 주는 가슴이 패션디자인에서 화두로 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들이 선보이고 있다. 유방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성 차의 하나인데, 다른 동물에서는 젖먹일 때 외에는 부푼 유방을 가진 동물이 없다.

서양의상에서 유방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많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방의 팽윤 정도를 감추는 것이 미덕이었다. 서양에서 큰 유방을 좋게 본 것은 아마도 유용성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서양의 고대 원시 사회는 식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유방의 수유 기능이 매우 신비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큰 유방이 수유 기능과는 사실은 관계없지만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그 반증으로 농산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유방이 강조되지 않고 대신 생식기관이 강조되는 성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미술작품에서 유방은 시대에 따라 표현 유형이 다름에도 그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유형은 공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나라별·시대별로 훑어보면 그 시대가 매우 융성하고 외형적으로 문화의 절정에 있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약간 퇴폐적인 그림자가 내비칠 때, 다소 큰 유방인 원뿔형 유방이 다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원뿔형 유방은 관능적 표현의 미술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방이 여성임을 나타내는 기관 즉 성기의 하나로 보여 지는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듯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가슴 부분은 패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므로 가슴 디자인에 대한 연구

는 앞으로의 디자인 전개를 위해서도 의미 있다고 본다. 패션에서의 가슴이 강조되는 디자인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그 디자인의 미적 가치를 분석해보았다. 첫째, 은폐형으로 옷을 밀착시켜 입거나 유두가 드러나는 것, 혹은 앞가슴을 깊게 꿰으나 가슴이 노출되지는 않는 디자인들이다. 이것은 가슴을 직접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도 가려서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상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여 개인의 은밀함과 아름다운 정숙미를 느끼게 한다. 둘째, 브래지어나 콜셋 등 보정용으로 사용되던 언더웨어가 가슴의 곡선을 강조하는 형태의 겹옷으로 표현된 것이며 이것을 압박형 디자인으로 보았다. 가슴부위를 압박하지만 가슴이 강조되어 오히려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신체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압박하여 가슴의 곡선을 강조하는 형태는 가학적인 미를 느끼게 한다. 셋째, 노출형으로 가슴을 밖으로 드러내는 디자인을 말하며, 이것은 여성 인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동안 숨겨져 왔으므로 여성의 신체 중 가장 에로틱하게 느껴졌던 가슴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가슴을 노출시키는 것은 유방이 성 기관이 아닌 그저 남자와는 다른 매력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 때문으로 보이며, 이것은 로맨티시즘으로서의 승화로 패션에 표현되어 관능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는 과장된 형태의 제2의 몸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체를 위장하여 보여주는 디자인들이다. 과장형은 노출에 대한 수치심과 이상적 신체에 대한 갈등을 바디스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속옷은 따로 착용해야만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미래형 디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인체의 조형미와 가슴부위의 형상미를 느끼게 한다.